

2022년 01월 16일

주일예배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변화 부흥
회복

♥ 가정예배순서 ♥

◎ 예배선언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지켜주심을 바라며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합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 묵상기도(인도자는 시편 4편 7~8절을 읽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찬 송 / 93(통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 대표기도(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간단히 기도합니다.)

◎ 성경봉독 / 요한일서 2장 12~27절(신약p.389)

12.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었
13.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4.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었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었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15.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17.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8.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20.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1.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었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22.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3.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24.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25.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26.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27.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 말씀선포 /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 안에는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과 모임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제 갓 예수님을 따르게 된 새신자도 있고, 믿음의 연륜이 오래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누구나 계속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고 했고, 사도바울도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고 했으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에베소서 4장 13~15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도가 나날이 영적으로 성숙해지며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물리적으로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영적으로 악하고 세속적인 세력을 뜻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 안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분명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에는 세속적 가치들, 즉, 육신의 눈을 만족시키기에 합당한 것을 추구하라는 세상의 유혹과 달콤한 속삭임이 넘쳐납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피곤하고 지칠 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라고, 너무 뽀뽀하게 굴지 말고, 융통성 없이 그저 혼자 독불장군처럼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또 그것을 소유했다는 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 속한 정욕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본문 15~17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베드로 역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 했고,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계속 이러한 세속적 가치들에 동요되지 않도록 온전한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 할 참된 이유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이 세속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과 경건한 믿음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성숙시켜 가십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은혜의 수단인 기도와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용함으로 계속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2. 사탄의 공격에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 요한은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18절에서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본문 22~23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고 말씀했습니다. 참으

웃으며 삽시다./사랑하며 삽시다./감사하며 삽시다./축복하며 삽시다.
우리 가정의 소원을/ 영적인 자녀와 육의 자녀의 소원을/ 경제의 소원을

로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는 자들이자, 예수님에 대한 거짓된 교리를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고, 이들에 의해 믿음이 어린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바른 교리에 성도들을 분리시켰을 뿐 아니라, 성도들 간에 심각한 분열을 조장했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자들로부터 바른 믿음을 지키려면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힘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힘은 오직 진리를 배우고 알 때만 갓출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고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거짓을 분별해 내는 자들을 사도 요한은 “청년들아” 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와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신의 신앙을 그 말씀 위에 세우는 일에 시간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누구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거짓 교리와 가르침으로 믿음이 약한 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들로부터 자신을 영적으로 잘 지키고 믿음이 어린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계속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영적 성숙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룰 때만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정욕들을 이기며 거짓된 교리들로부터 개인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간절히 원하신다면 더욱 말씀과 교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 가족합심기도

- 1.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 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2.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계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 3.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 찬 송 / 191(통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 폐 회 / 주기도문